

## 다산포럼

## 슬프고 힘들면 노래하자, '벤다 빌릴리'처럼

유지나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매일매일 접하는 소식은 슬프고 놀랍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3 삶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 삶의 만족도는 하위권이다. 특히 사회 공동체 지지감이 매우 낮고, 소득격차 문제가 두드러진다.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 사회는 매우 뒤떨어진다. 그러니까 자살률이 OECD 1위인 것과 앞뒤가 맞는다. 글 쓰는 이 시각에도 인터넷에 선 노인 빙곤을 상승 1위와 '고독사' 문제가 끊임 있다.

## 양동옥의 S 스토리

## 장애인 밴드의 음악놀이

막막한 마음으로 나衮을 밟다가 만난 콩고 영화 '벤다 빌릴리'는 마음에 꽂힌다. 이 다큐는 놀이의 힘, 호모루멘스의 용기로 체지는 어깨를 세우고 나아가라고 격려해준다.

장애인 밴드 '벤다 빌릴리'는 거리를 누비며 하루하루 살아간다. 비포장도로에 훨씬

공동체로 살아간다.

이들의 음악놀이 삶에 감복한 프랑스 기자들이 초저예선 다큐로 이들의 분투를 중계해 준다. 일단 리듬이 시작되면 일상의 아픔은 흥이 되어 구경꾼을 감염시키는 마력을 발휘한다.

솔직담백한 노랫말은 해학의 묘미로 심장을 두드린다.

"마르가리타, 내 누이여/ 우린 한 가족이었지. 가난으로 우린 흘어졌네/ 누이는 강자에, 난 이전에/ 우리를 연결하는 건 이 동통신뿐." "오래 살고 싶으면 몸 사리고 살라"는 아버지의 말을 들려주기도 한다.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무심하지/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끗끗하네/ 우리끼리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아프리카여 깨어나라! 라고 절규하며 함께 먹고사는 공동체의 힘을 발휘한다. 노래하다 흥이 오르면 마비된 두 발 대신 두 손으로 신명 나는 춤까지 걸들어 열광의 도가니를 만든다.

화재로 중단된 녹음 실내로 흘어졌던 이들은 다시 만나 야외동물원에서 녹음에 성공한 시길 권한다.

다. 앨범 제목은 '트레 트레 호르(매우 매우 강한)', 이들이 유튜브에 소개되고, 유럽 투어에서 월드뮤직 스타로 떠오른다.

## 때론 비장하게, 때론 흥겹게

공연을 보노라면, 노예로 끌려간 아프리카인의 이름이 미대륙에 탄생시킨 블루스와 소울, R&B, 레게의 뿌리를 접하는 멜랑콜리한 황홀마저 느끼게 된다.

굶주린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과파 리키로부터 늘유 깡통 기타의 창조자인 소년 가장 로제의 비장한 흥겨움은 예술적 신명으로 세상을 울린다. 무엇보다 이들의 생명력이 길거리 연대에서 나온다는 점은 큰 격려이다.

팁 : 간느영화제에서 30분 이상 기립박수를 받은 이 영화는 서울의 두 극장에서만 개봉돼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유튜브에 '벤다 빌릴리(Benda Bilili)'를 두드려 '음악-놀이'의 힘을 즐겨보시길 권한다.

## 社說

## 정국경색 실태 뜬금 박 대통령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를 설명하고, 이에 맞춰 협약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시해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2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이 1%대로 올라가고, 지난 10월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 "겨우 불씨를 살렸을 뿐"이라며 "이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주면 이를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논란과 민주당의 특검 도입 문제, 국정원 자체 개혁 등 정치권과의 소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여당 역시 야당에 희로를 열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 야권도 투쟁보다는 협상을 통해 정치력 복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다시 격랑 속으로

## 광주 진입로 교통체증, 그냥 두고 볼건가

무지구로 직진하려는 차량이 잉기면서 매일 아수라장을 연출하고 있다. 여기에 빛고들로와 무진로가 정체되며 광주시청과 광천동터미널 부근 등 반경 1~2km도로까지 여파를 미친다. 두 길은 광주의 대규모 택지인 수완·첨단·상무지구 등을 있는 간선도로여서 차량이 막히면 '교통 동맥경화 현상'이 발생하는 셈이다.

그러나 광주시의 대책은 시급히 해결을 촉구하는 운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빛고들로 대체로 신설을 추진하고, 무진로는 호남고속도로와 맞닿아 있어 전남 대외 차량의 연결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출퇴근 때는 수 만대의 차량이 몰리면서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무진로는 무안, 함평, 영광, 나주 등지의 출퇴근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1~2km를 가는 데 무려 20~30분이 소요되기 일쑤다. 더욱이 복목구간까지 있고, 수완지구로 빠지려는 차량과 상

## 無等鼓

"거열랑·실처랑·보동랑 등 세 화랑의 무리가 금강산에 놀이를 가려는데 혜성이 심대성(心大星=전갈자리 α성 안тар데스)을 침범했다..."

일연스님이 쓴 '삼국유사' 진평왕(579~632년)조에는 향가 '혜성가'와 관련된 얘기가 실려있다. 낭도들이 혜성 때문에 여행을 중지하려 하자 승려 융천사가 노래를 지어 부르니 '혜성의 변곡' 즉 사라지고, 일본의 군사가 저희나라로 물려들어 복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운영하는 조선왕조 실록사 이트(sillok.history.go.kr)에 '혜성'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1235건의 관련 내용이 뜬다.

이 가운데 속종 8년(1682년) 7월 23일자 실록에는 "...임금이 풍재(風災)와 혜성이 변고로써 두려워한다는 뜻을 알리고, 형조판서에게 유시(諭示)하여 감옥의 죄수를 속히 판결하게 하였다..."고 기록돼 있다.

'우주는 신(神)의 손으로 만들어진 질서정연하고 변화없는 것'으로 여겼던 옛 사람들에게 범하늘에 돌연 나타나는

/송기동 체육부장 song@kwangju.co.kr

## 기고

## 품위있는 언어를 사용하자

김용하  
광주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근래 인터넷 댓글들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나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우명 정치인들이 국감장이나 인터뷰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보면 너무 저속한 표현들이 많다. 또한 수많은 팔로어를 거느리고, 우리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문화인들조차도 정치현안이나 각종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내

## 아침을 기분 좋게 해준 거리청소 봉사활동에 감사

최근 아침에 출근해서 학교 교통봉사 하시는 학부모님들을 격려해 드리기 위해 후문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웬지 기분이 좋아졌다. 낙엽이 바람에 흘날리며 떨어지는 모습도 아름답고 정겹게 느껴지기만 한다. 어느 날과 그리 다를 바가 없는데, 언제나 보아온 모습들인데 오늘따라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느껴진다. 내 기분이 오늘따라 더 좋은가 보다 생각하면서 사거리 길 모퉁이에 섰을 때, 쭉뻗은 사거리리를 보고 있는데 아! 이거였구나!

평소에 내가 보던 아침 사거리의 모습은 빛바랜 휴지들이 여기저기 펑글고, 빈 강통

놓는 입장표명이 지나치게 공격적, 편파적이거나 이전 투구를 조장하는 듯 하는 내용의 언어들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인간은 신의 창작물로 태어나서, 신의 구도대로 살다가 종말을 맞게 된다. 살아보니 세상의 모든 일이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대로만 된다는 것이 아닌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예정된 길이 있었지만 않는 생각되는 때가 많다. 그래서 유신론적 실존주의가 등장했는지 모른다. "맡은 인간의 영성의 표현이고, 실존의 표출이며, 행동의 죽적이다"라고 어느 철학자가 말했다.

언어는 신의 창조물 가운데서도 인간에게 허락해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근래에 이 큰 혜택인 말을 일부로 사용하여 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가 하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안타깝다.

"칼로 난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말로 입힌 상처는 영원히 간다"는 말도 있지만 요새 우리 사회의 언어의 사용을 보면, 너무 무분별하고 삼삼으로 일어난다.

내가 아무 근거 없이 한 말 한마디, 잘못 사용된 용어 하나가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도 있고,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 세상에 본을 보이는 격조 높은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것은 정녕 어려운 일인가?

특히 언어를 매개로 하여 전문적 활동을 하는 정치인들이나 창작을 하는 문학인들의 평상시 언어의 사용과 용어의 구사는 더욱 신중하고, 품격이 있어야 하며,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언어는 그 자체로 품위를 높여주는 힘을 갖고 있다. 예전에는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기사를 피해 출퇴근하는 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오늘은 어쩐 일인지 생각하면서 교통봉사 하시는 학부모님들께 물어본다.

"어제 구청에서 청소를 했나 봅니다. 별난 일이네요. 하여튼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예요. 선생님! 오늘 아침에 인근에 있는 원광신협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봉사활동으로 이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간 거랍니다."

지금에서야 원광신협의 임직원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깨끗한 거리를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인성을 키워갈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가까운 이웃에 이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웃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 금호동도 살맛나는 동네구나?'하는 뿐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길 모퉁이에 있는 세탁소 주인아저씨와 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원광신협 임직원들은 여기 말고도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많은 곳에 봉사활동을 하신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원광신협 임직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천성만·금부초등학교 교장

## 光州日報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제부 2200-663
<대표 FAX 222-4918>	<F A X 222-8005>
면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치부 2200-612	광고마케팅국 227-9600
<대표 FAX 222-4918>	독자서비스국 2200-651
사회부 2200-616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26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